



2026년 4월 19일(제1296호) 부활 제3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건을 겪습니다. 성공의 경험을 할 때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실패의 경험도 하게 되죠. 사람은 큰 아픔을 겪게 되면 잠깐 멈추게 됩니다. 큰 실망을 하거나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곳을 찾기도 하고, 사람들 속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머물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예전의 무미건조한 일상 속으로 숨어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길을 헤매다가 원래 갔었던 편안한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 속 제자들의 표정은 침통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보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다고 하셨던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길을 걷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은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부활하신다면 예수님은 그 어디에서도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많은 회의감과 불안감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의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은 식었기에 표정에 침통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의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처진 어깨를 토닥이듯 함께 길을 걸으십니다.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 받느냐?” 하고 물으시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 중 한 사람은 멈추어 섭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며 그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묵으십니다. 그러면서 빵과 포도주를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그들이 다시 기억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빵을 떼어 나눠주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았는지 기억하게 되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많은 이의 구원을 위해 나눠 주셨다는 것을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그들의 기억은 되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풀이해 주신 성경 말씀도 기억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변방으로 밀려나고 어깨가 무거워져 있을 때도 함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방황할 때에도 찾아오시는 좋으시고 따뜻한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런 분을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는 가운데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끝이 났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남겨주신 말씀과 그분에 대한 기억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분들을 기억할 때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죠. 제자들은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뵈게 됩니다. 베드로와 토마스, 나타나엘 등의 일곱 제자는 어부로 돌아갔지만, 그들을 처음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에도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부활 3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부활의 기쁨이 이어 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아멘.



김성훈(루카) 신부
회령(제1171동시당) 상당 주임

- 제 1 독 시 사도 2,14.22~33
- 회 립 송 ◎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 제 2 독 시 1베드 1,17-21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 복 음 루카 24,13-35
- 영 성 제 송 빵을 나눌 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알렐루야.

진주교 군중교구사(군 시목 50년사)

<표 1-2> 육군 군중 제2기 군중신부 현황


이름	부임지	소속교구
이삼복(李三馥, 요한)	3사단	서울
이계광(李啓光, 요한)	제23육군병원	
박희봉(朴喜奉, 이시도로)	제2육군병원	
윤병희(尹炳熙, 바오로)	제23육군병원	
신상도(辛尙道, 프란치스코)	제36육군병원	대구
김영태(金永泰, 도미니코)	9사단	전주
서정수(徐廷壽, 알렉시오)	1사단	

육군 제1기생과 제2기생으로는 신상도 신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울교구와 전주교구 등 공산 점령 지역에서 피난 온 신부들이 입대하였다. 1951년 10월 1일에는 대구교구 창녕본당(현 마산교구)에서 사목 중이던 안달원 신부가 제3기생으로 입대하였다. 육군 군중 제3기생은 모두 24명이었는데 전주교구에서는 안 신부와 서울교구의 박지환 신부 및 전주교구의 조상익 신부 등이었다.

한편, 1951년에 입대한 육군 군중신부 제1, 제2, 제3기생은 모두 21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현역 장교로 임관되지 못하고 무보수 촉탁 신분으로 군중활동을 시작하였다. 무보수 촉탁 신분은 피복과 식량을 제외한 모든 활동 경비를 중단측에서 부담한다는 창설 당시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교회에서 지급되는 약간의 보조비로 군중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그것은 미 8군에서 보조해 주는 미사주와 약간의 보급품, 그리고 캐를 안 몬시놀리 지급하는 1달러의 미사예물이 전부였다. <다음 주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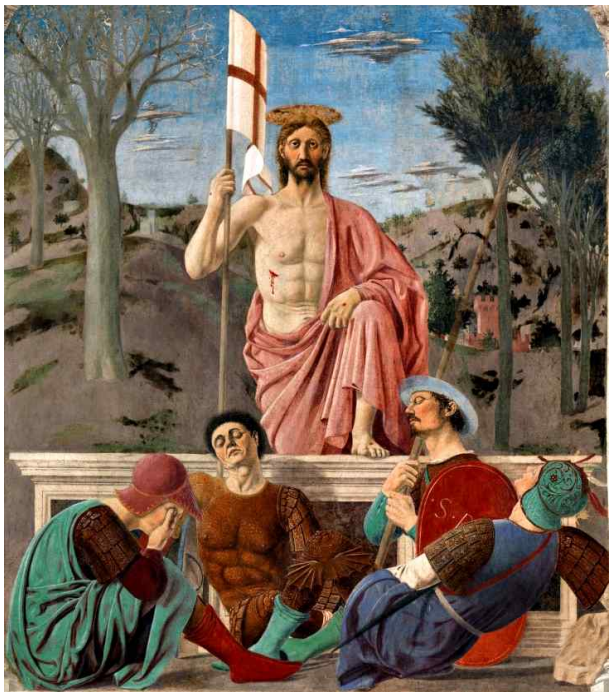
『진주교 군중교구사(군 시목 50년사)』 발췌, 진주교 군중교구

복	음	목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p>◆ ‘군중의 시간’ 3주차 프로그램 <군장병의 편지> 원고 모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량: A4 빈쪽~한쪽 - 소재: 군 생활 에피소드, 소감, 진역 이후의 계획 등 소재 무관(신창곡 기능) - 기한: 연중 상시 접수 - 접수: 군중교구 홍보국 (hongbo@gunjong.or.kr) - 신장 시 소장의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 장병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p>길에서</p> <p>혼자 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로 또 오늘을 맥이 빠지고, 사는 것이지요. 발이 무거운 길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우리네 삶입니다. 초대하고, 나누며</p>				<p>내에게서, 우리로 함께 가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p>	
<p>▶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목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p>					



상화이야기

예수님의 부활



피에로 델리 프란체스키(Piero della Francesca, 1415-1492) 1460년경 제작 / 프레스코화, 225x200cm
산세폴크로 미술관(Museo Civico di Sansepolcro), 이탈리아

1944년 여름 연합군이 이탈리아를 공격하던 중, 영국 포병 장교 앤서니(토니) 클라크 중위는 독일군이 잠복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토스카나 지역의 산세폴크로(성스러운 묘, 즉 예수님이 매장되었던 동굴/묘를 뜻함) 마을에 포격을 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클라크 중위는 곧, 10대 시절 읽었던 알더스 헉슬리의 책에서 그가 산세폴크로 시청 건물 내부 벽에 프레스코화로 제작된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림”이라 칭송했던 것을 기억해내고, 상부의 포격 명령 앞에서 망설였다.

클라크 중위는 그 그림을 직접 본 적도 없었고, 독일군이 그 마을에 남아 있는지, 그림이 이미 파괴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현지 첩보에 따르면 독일군은 이미 퇴각했지만, 이것이 잘못된 정보였다면 포격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군법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미 2차대전 중 각종 전투로 잔뼈가 굵었던 클라크 중위는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격 명령을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국 그의 선택은 옳았다. 독일군은 이미 철수했고 마을은 파괴되지 않았으며, 이 작품도 무사히 남아 우리가 이 ‘위대한’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의 시신을 덮었던 석관을 던지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아래 숙절없이 잠들어 있는 군인들을 산세폴크로 풍경을 배경으로 그린 이 작품은 아직도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조용한 울림을 준다. 이 그림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헉슬리의 글과 클라크의 용단, 독일군 지휘부의 퇴각 결정, 현지 정보 등이 결합된 덕분이었지만, 아마도 이 이야기와 이 작품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일화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흥회 회원들 위헌 미사 - 부활 제3주일: 신신대 박동진 신부

◆ 교구장 동정

- 서울대교구 길음동 성당 미사
 때: 4월 19일(주일) 11:00

- 2027 WYD 십자가와 성모성화 맞이 예식
 때·곳: 4월 24일(금) 10시 미사 중,

- 한국가톨릭원목자협회 2026년 춘계 상임위원회의
 때: 4월 21일(화) 15:00, ZOOM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작은 가정교회” ■ 이루는 온인성사의 해